



권부근

두산종합식품(주)

##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자

**며** 칠전 부천 도당동에 소재한 도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조기에 일깨워주기 위하여 집 근처의 가까운 공장을 방문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숙제를 내주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견학과 더불어 설명을 듣고 학생들로 하여금 숙제를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며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쾌히 승락하여 이윽고 그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방문을 하였다.

학생들은 8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그중 조장이 1명 있고 학부모 두분과 함께 총 10명이 회의실에 마주 앉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당사의 환경 홍보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VTR을 시청하던중 당사 환경관리 및 수질오염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질오염의 70%는 생활하수 즉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부로 버린 물이고, 30%만이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반박을 하였다.

“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탄강에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공장폐수를 마구 버려서 고기가 다 죽었다고 나오던데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폐수 무단 방류사건이 보도되면서 마음이 심란하던 차에 뒷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럴때 뭐라고 대답했을런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외쳤는가?

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경제우선 정책”이 아니고 “환경우선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리고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이 환경관리를 해야한다고……

또한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에서는 환경관리인들의 위상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외침들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몇 사람의 불민한 행동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눈총을 받으며 실추된 자존심과 환경관리인들의 명예는 누가 회복 시켜줄 수 있을런지?

GNP 1만불 시대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이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GR의 파고로 환경인증 없이는 수출조차 어려운 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ISO 14000 획득과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지정은 경쟁 사회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인들의 역할과 임무 역시 막중해졌다.

이무조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우리 스스로가 이땅의 진정한 환경 파수꾼으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